



'23년 디(D)-테스트베드 사업 우수참여팀 6개 선정

- 36개 팀이 14주간 테스트한 결과를 평가하여 6개 팀을 우수 참여자로 선정
- 사업 개시 3년차인 '23년에도 운영방식과 데이터를 지속 보강하여 참여자들의 신규 펀테크 아이디어 고안과 검증을 촉진

금융위원회와 펀테크지원센터는 금융감독원, 신용정보원, 금융결제원, 금융보안원과 함께 '23년 D-테스트베드 사업에 참여한 팀들 중에서 우수 참여팀 6개를 선정하였다.

'23년도 D-테스트베드 사업*에 참여한 36개의 팀은 지난 '23년 5월과 9월부터 각 14주간 아직 본격적 사업화 이전 단계에 있는 펀테크 아이디어의 사업성과 실현가능성 등을 시험(test)했다.

* 혁신적인 펀테크 아이디어를 보유한 개인과 기업들이 아이디어를 시험해볼 수 있도록 ①**다양한 실제 데이터**(금융위원회 공공데이터, 금융·비금융 결합데이터, 금융결제원·신용정보원·통계청 데이터 등), ②**원격 테스트 환경**, ③**분야별 전문 멘토링**, ④**타당성 평가 의견서** 등을 제공

- **기존의 금융규제샌드박스 제도**는 기업이 서비스를 시장에 출시하고자 할 때 규제 특례를 부여하는 제도로, 기업이 아이디어를 시장 출시 전에 자체적으로 시험하고 검증하는 과정을 지원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이를 보완하기 위해 도입

'23년 D-테스트베드 사업부터는 지원효과를 높이고자 종전과 달리 ① 참여자 모집회수를 기존 연 1회에서 상·하반기 2회로 확대하고 ②상시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오프라인 분석환경을 운영하였으며, ③사용 가능한 데이터에 비금융 업권(공공·유통) 데이터 등을 신규로 추가함과 동시에 ④데이터 기준기간도 확장하는(예:2년치 → 3년치) 등 운영 방식을 개선하고 제공 데이터를 확대하였는데, 그 결과 참여팀 수가 전년 대비 증가(31개 → 36 개, +16.1%)했으며, 비금융정보인 통신·유통 정보와 금융결제원이 신규 제공한 금융사기 의심유의정보* 등을 활용하여 아이디어를 시험할 수 있게 되었다.

* (예) 예·적금 중도해지 후 해지 당일 송금하는 경우

36개 참여팀들은 핀테크 아이디어의 시험을 마친 뒤 그간 수행한 작업내역과 도출한 결론, 기대효과 등을 담은 수행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였다. 동 보고서와 각 팀의 성과발표(presentation)를 대상으로 ①테스트의 과정·결과, ②아이디어의 구체성, ③소비자에 대한 편익 제공 가능성 등의 기준을 적용하여 종합적인 성과평가를 한 결과, 총 6개 팀(주어니스트펀드, 윙크스톤파트너스, 패턴파인더, IBA, (주)필상, 그레이드헬스체인)을 2023년 우수참여팀으로 선정하였다.

<2023년 D-테스트베드 우수참여팀 명단>

수상		기업명(팀명)	참여부문
대상	금융위원회 위원장상	(주)어니스트펀드	자유제안형
최우수상	금융감독원 원장상	윙크스톤파트너스	자유제안형
최우수상	핀테크지원센터 이사장상	패턴파인더	자유제안형
우수상	금융결제원 원장상	IBA	자유제안형
우수상	금융보안원 원장상	(주)필상	과제도전형
우수상	신용정보원 원장상	그레이드헬스체인	자유제안형

우수참여팀들이 수행한 과제들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① 금융위원회 위원장상에는 「연체 위험 등 리스크는 낮으면서 대출수요는 높은 신규 고객 빌률을 위한 대안신용평가모형」 아이디어로 검증을 진행한 (주)어니스트펀드가 선정되었다.
 - 동 사는 인공지능(AI)의 일종인 머신러닝을 통해 D-테스트베드가 제공하는 통신·카드 등 다양한 비금융 대안정보를 기준 금융정보와 함께 분석하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신용 리스크는 낮으면서 대출수요가 높은 고객을 선별하는 대안신용평가모형을 개발하였다.
- ② 금융감독원 원장상에는 「산업 데이터를 활용한 개인사업자 신용평가 모델 개선」 아이디어로 검증을 진행한 윙크스톤파트너스가 선정되었다.

- 동사는 자사의 기존 개인사업자 신용평가모형이 직장인 신용평가 모형을 개량한 형태로서 법인 사업자 신용평가때와는 달리 산업 특성을 고려하지 않는 점에 주목하여, D-테스트베드가 제공하는 산업별 데이터 등을 활용해 자사 개인사업자 신용평가모형을 개선함으로써 우량 개인 사업자를 추가 발굴할 수 있음을 보였다.

③ 펁테크지원센터 이사장상에는 「딥러닝·머신러닝 활용 금융사기탐지 모델의 최적화」 아이디어로 검증을 진행한 패턴파인더가 선정되었다.

- 동사는 D-테스트베드가 제공하는 입출금 계좌, 거래 데이터 등을 활용하여 머신러닝 모델 4건, 딥러닝 모델 7건*의 금융사기(보이스 피싱 등) 탐지 성능을 최적화한 뒤 비교하였으며, 이 중 머신러닝 모델에 대해서는 성능향상 방안을 제시하였다. 아울러, 향후 자금세탁 분야에서도 인공지능(AI) 기반 이상거래 탐지 모델을 적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 (머신러닝) XG Boost, Light GBM, CatBoost 등, (딥러닝) CARE-GNN, PC-GNN, GTAN 등

④ 금융결제원 원장상에는 「노년층 대상 건강자산스코어에 기반한 고령 사회 대안신용평가모형」 아이디어로 검증을 진행한 IBA가 선정되었다.

- 동사는 D-테스트베드가 제공하는 소비·통신 등 비금융 대안 정보 데이터를 활용해 건강자산 변수를 생성하고, 이러한 변수와 대출연체 와의 관련성을 검증함으로써, 상대적으로 대출 상품의 사각지대에 있던 노년층을 대상으로 한 신용평가와 대출 공급의 가능성을 열었다.

⑤ 금융보안원 원장상에는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방지를 위한 AI기반 실시간 악성 URL 탐지 및 차단」 아이디어로 검증을 진행한 (주)필상이 선정되었다.

- 동사는 D-테스트베드가 제공하는 금융거래 데이터와 금융결제원의 금융사기 의심유의정보 데이터를 활용하여 금융사기(fraud)로 귀결될 수 있는 금융거래의 유형을 분석하였고, 이러한 분석결과를 향후 신규 악성 인터넷주소(URL, Uniform Resource Locator)를 실시간 탐지하여 차단하는데 활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⑥ 신용정보원 원장상에는 「보험청구-대출연체간 상관관계를 활용한 대안 신용평가모형」 아이디어로 검증을 진행한 그레이드헬스체인이 선정되었다.

- 동사는 D-테스트베드가 제공하는 신용정보원의 실손보험금 청구 이력 데이터를 활용하여 실손보험 청구 이력과 신용간의 상관관계가 존재할 것이라는 가설을 검증하였고, 신용이력부족자(thin-filer)에 대해서 개인 건강상태 개선시 신용평점 개선 등 금융혜택을 제공하는 모형이 가능할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금융위원회는 2024년에도 ①'23년과 유사한 규모로 D-테스트베드 사업 참여팀을 모집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담당 부서 <총괄>	금융위원회 금융규제샌드박스팀	책임자	팀 장	김보균 (02-2100-2841)
		담당자	사무관	김혜수 (02-2100-2872)
<공동>	금융감독원 디지털혁신국	책임자	국 장	곽범준 (02-3145-7160)
		담당자	팀 장	심은섭 (02-3145-7162)
<공동>	신용정보원 금융AI데이터센터	책임자	센터장	이철흠 (02-3705-5433)
		담당자	팀 장	최재철 (02-3705-5767)
<공동>	금융결제원 금융데이터융합센터	책임자	센터장	이동욱 (02-531-1650)
		담당자	팀 장	김재완 (02-531-1660)
<공동>	금융보안원 데이터혁신센터	책임자	센터장	오중효 (02-3495-9900)
		담당자	팀 장	이광우 (02-3495-9910)
<공동>	한국핀테크지원센터 금융혁신부	책임자	부 장	김주환 (02-6375-1520)
		담당자	대 리	이승하 (02-6375-1527)